자출(자전거 출퇴근) 부터 그랜드슬램 그리고 먹방 라이딩

글. 강창국 YTN 차장

자출족이 되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모두 갖추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하나씩 갖추어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 나의 경우는 후자에 가까울 것이다. 물론, 엄밀하게 말한다면 그도 아닌 것이 자출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회사는 남대문에서 상암으로 사옥을 옮겼다. 영등포 집에서 이전 사옥은 대중교통으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30분이면 출근이 가능했다. 하지만 상암 사옥으로 오고 나니 대중교통이 너무 불편했다. 지하철로 2번 갈아타는 것이 그나마 가장 빠른 코스로 40~50분 소요되고,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긴 하지만 출근 때는 1시간 20분 퇴근 때는 1시간 40분으로 너무 힘들었다. (자차로 30분인 건 함정) 안 되겠다 싶어 마눌님을 설득하기 시작했고, 1년간의 긴 노력 끝에 허락을 얻어 아는 동생 손을 잡고 자전거샵에 가게 되었다.

그저 아무것도 몰랐기에 하이브리드 자전거를 사려고 했다. 하이브리드는 MTB와 로드 자전거의 중간 형태로 타기 편하고 바퀴가 좁아 속도도 낼 수 있어 출퇴근용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마다 "이거 사시면 후회하고 나중에 다시 사게 될 거예요. 그냥 MTB나 로드 중에 선택하세요."라고 하는 것이다. 당시 왠지 모르지만, MTB와 로드 중 로드가 더 내 눈에 들어왔다. 그 당시 선택 기준은 가성비였기 때문에 사장님께 "싸고 잘나가는 거 주세요"라고 하니, 사장님께서는 "그러시면, 1년 지난 모델이지만 구동계는 sram #$%^&*()@#$%^&*(… "내 귀에는 외계어로밖에 들리지 않았고 사장님께 "그래서 얼마인가요?"라고 하니 사장님은 웃으시며 "1년 지난 모델이라 싸게 드릴게요. ○○○만 원만 주세요." 충격적이었다. '무슨 자전거가 이렇게 비싼 거야!!' 속으로 생각했지만,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사기당하는 것은 아닌가? 살짝 불안하긴 했지만 오너 드라이버의 꿈을 버릴 수는 없었다. 그렇게 처음으로 로드 자전거의 주인이 되었다.

출퇴근 자전거길은 12km로 코스도 상당히 좋았다. 처음으로 자출을 해보니 30~35분 정도 소요되었다. 샤워하는데 10~15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따지면 2번 환승해서 대중교통을 타는 것과 시간상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거기에다 회사엔 샤워실도 있어서 외부에서 샤워하고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렇게 나의 자출은 시작되었다.

자출을 시작하고 나니 주변의 동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전거 얼마냐,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등 질문을

종주 구분	인증 기준
구간별 종주	다음 구간을 종주한 자전거길 이용자 (총 1,853km) · **한강 종주 :** 아라한강갑문에서 충주댐까지 종주 (192Km) · **남한강 인증 :** 팔당대교에서 충주 탄금대까지 종주 (132Km) · **북한강 인증 :** 밝은 광장에서 춘천 신매대교까지 종주 (70Km) · **새재 종주 :** 충주 탄금대에서 상주상품교까지 종주 (100Km) · **낙동강 종주 :** 안동댐에서 낙동강 하굿둑까지 종주 (389Km) · **금강 종주 :** 대청댐에서 금강하굿둑까지 종주 (146Km) · **영산강 종주 :** 담양댐에서 영산강하굿둑까지 종주 (133Km) · **섬진강 종주 :** 섬진강 생활체육공원에서 배알도 수변공원까지 종주 (149Km) · **오천 길 종주 :** 행촌교차로에서 합강공원까지 종주 (105Km) · **동해안(강원) 종주 :**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삼척 고포마을까지 종주 (242Km) · **동해안(경북) 종주 :** 울진 은어다리에서 영덕 해맞이공원까지 종주 (76Km) · **제주환상종주 :** 제주도 해안도로 일주 (234Km)
국토 종주	아라서해갑문에서 낙동강 하굿둑까지의 구간을 종주한 자전거길 이용자로 해당 구간의 모든 인증센터(인증 부스)에서 인증 스탬프를 날인한 자
4대강 종주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자전거길을 모두 종주한 자전거길 이용자로 해당 구간의 모든 인증센터(인증 부스)에서 인증 스탬프를 날인한 자
국토완주 그랜드슬램	전 구간을 종주한 자전거길 이용자

종주 인증 분류 / 출처 :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페이지 www.bike.go.kr

하시기 시작했다.

그중 동료 한 명이(이하 동료 A) 로드 자전거를 구매하면서 내 자전거 생활에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다. 동료 A도 나도 초보였지만 같이 라이딩을 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저 출퇴근만 하면 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동료 A가 줄 것이 있으니 잠시 보자고 했다. 그렇게 건네받은 것은 '자전거 종주 수첩'. 난 출퇴근으로 충분한데… 왜 이런 걸 주지? 의아하게 생각하며 그래도 성의를 생각해서 받아 두긴 했지만, 이걸 '이걸 다 채우긴 하겠어?'라고 생각하며 그저 '내가 가는 길에 도장 찍는 곳이 있으면 그냥 찍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이 작은 수첩을 채우기 위해 자전거로 전국을 누비게 될지 그때는 몰랐던 것이다.

자전거 종주는 구간별로 몇 종류가 있다. 행정안전부 자전거 행복나눔 페이지에서 살펴보면 좌측과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란다.

섬진강과 영산강, 첫 자전거 여행

서울 근교의 코스들을 여러 차례 라이딩하다 보니 점점 장거리 라이딩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동료 A와 2016년 처음으로 장거리 라이딩 원정을 계획하게 되었고, 코스를 보던 중 난이도가 높지 않은 섬진강과 영산강을 3박 4일간의 코스로 결정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내린 곳은 동광양 버스터미널. 점심을 간단히 마친 후 출발하려는 데, 헉…. 튜브가 터진 것이다. 그 당시 튜브를 교체해 본 적도 없었고 당연히 예비 튜브, 타이어 등도 챙겨오지 않았다. 솔직히 튜브가 터질 것이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폭풍 검색으로 주변의 자전거 샵을 찾아 타이어를 교체한 후 출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오후 3시를 넘긴 상황 조급해지기 시작했다. 나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평야 지대라 업힐이 없어 8시쯤 곡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첫날 묵은 곳은 기차마을 레일 펜션으로 기차를 개조해 침실로 만든 곳이다. 우리는 가볍게 샤워를 마치고 간단히 삼겹살에 소주 한잔을 한 뒤 잠이 들었다.

둘째 날, 눈을 떠보니 비가 내리고 있었다. 한 번도 비가 오는 날 자전거를 타보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 보기로 했다. 조금 기다리니 빗줄기는 조금 잦아들었고 마냥 지체할 수도 없어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비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가는 내내 비가 쏟아졌다. 지금 같았다면 그 정도 비는 바로 출발했을 것이다. 얼마나 달렸을까? 우리의 첫 완주 코스의 끝인 섬진강댐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한 기쁨도 잠시, 담양댐까지 50킬로를 지방 국도로 가야 하는 상황에 비를 맞아 이미 방전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여 점프하기로 했다. 다행히 자전거 캐리어가 달린 택시기사분의 연락처를 얻을 수 있어 체력과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 다시 담양댐을 출발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비를 뚫고 깜깜한 밤이 되어서야 광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할 때쯤 비가 그치긴 했지만, 몸도 마음도 이미 지쳐 있었고 모텔을 잡아 빨래와 샤워를 마치고 나니 시간은 이미 10시를 지나고 있었다. 허기를 달래기 위해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다음날을 기약했다.

셋째 날, 드디어 목표한 세발낙지를 위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고 점심때 나주에 도착하였다. 그쯤 허기가 밀려오기 시작했고 근처의 백반집을 들렀는데 이게 웬일인가? 이것이 그 말로만 듣던 '호남의 밥상'이었던 것이다. 테이블 가득한 반찬들을 보며 흐뭇함과 함께 당 충전을 한 뒤 다시 목포로 향했다. 그래도 생각보다 남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거의 다 왔다고 생각했지만 오판이었다. '느러지 관람전망대'는 우리의 2일간의 지친 심신을 탈탈 털어갔다. 거기다 공사로 전망대에 올라 제대로 된 경관도 볼 수가 없었다. '느러지 관람전망대'로 많이 지친 상태로 섬진강 하굿둑을 향해 출발했지만, 가도 가도 하굿둑의 늪을 벗어날 수 없었다. 섬진강 하구는 평이한 구간이었지만 '느러지 관람전망대' 이외에 다 비슷비슷한 경치라 얼마나 왔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하굿둑에 도착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다가와 우리를 묵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셨다. 우리는 마지막을 즐기기 위해 목포 시내에서 맛있다는 낙지 전문식당을 찾아갔지만 이미 마감한 뒤였다. 실망한 마음을 달래며 근방의 횟집에서 낙지를 시켰지만 문어만 한 낙지가 나와서 우리는 많이 당황했고, 두 번을 실망한 뒤 잠을 청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오기 위한 교통수단으로 기차를 선택했고 기차역 주변에 뭐 먹을 것이 없을까 둘러보던 중 우리의

목포 성식당 떡갈비 집

코를 자극하는 소고기 냄새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우린 서로 눈빛으로 이야기하고 들어간 곳은 '성식당' 떡갈비 집이었다. 누가 떡갈비는 담양이라고 했는가? 우리는 '성식당' 이후로 떡갈비는 목포라고 당당히 말하게 되었다. 우리는 전날 낙지의 충격을 떡갈비로 회복하고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금강, 비에 젖은 라이딩

섬진강과 영산강을 완주하고 나니 이젠 다른 코스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2017년 다음 코스를 계획하게 되었다. 금강을 최종 목적지로 오빈역에서 남한강을 정복한 뒤 내려가기로 한 것이다. 원래 계획은 6월이었으나 계획한 기간에 문제가 생겨 7월에 가게 되었다.

오빈역에 도착한 우리는 간단히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충주를 향해 라이딩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날씨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7월답게 무더운 날이었다. 폭염 속 라이딩을 하다 보니 '비라도 시원하게 내려라'하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기 시작했고, 어느덧 탄금대를 지나 충주에 도착할 수 있었다. 충주는 충청도, 충청도는 짜글이, 짜글이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첫날을 마감했다.

둘째 날은 전날과 달리 흐린 날씨라 날씨가 도와주는구나 하며 대청댐을 시작으로 라이딩을 시작했다. 우리는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거쳐 부여에 도착할 수 있었고, 옛 백

강천보 인증센터에서

군산 동국사에서 한 컷

제의 수도라서 인지 곳곳에 백제의 문화유산이 숨 쉬고 있어 벅차오름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감동도 잠시 숙소를 잡으려고 하니 여인숙 같은 숙소만 보였고, 그나마도 만실이라 겨우 방을 잡아 짐을 풀었다. 근방에 서동한우가 유명하긴 했지만 저녁은 간단히 해결하고 잠을 청해보았다. 하지만 에어컨 냄새와 눅눅한 이불 덕에 통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거의 날밤을 새우고 아침이 되었다.

아침이 되니 바람을 동반한 장대비가 그칠 줄 모르고 오는 것이 아닌가? '첫날의 기도를 하늘이 들은 건가요? 그래도 그렇지 왜 중간은 없는 건가요?'라고 생각하며 중도 복귀냐 아니면 강행이냐를 두고 작전 회의에 들어갔다. 결론은 남은 거리도 짧으니 불태워 보는 거였다. 비는 살을 파고들듯 따가웠다. 더운 여름에 비를 맞아서인지 아니면 거리가 짧아서인지 점심때쯤 금강 하굿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하고 나니 날은 흐렸지만 비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전날 부여의 충격으로 숙소를 호텔로 잡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잠시 짧은 휴식 후 군산 시내로 나갔다. 1차는 술만 사면 안주가 따라 나온다는 실비집을 거쳐, 2차는 군산에서 유명하다는 곱창볶음집을 흡입한 후 하루를 마감하였다.

늘 그렇지만 항상 마지막 날은 아쉽기 마련이다. 군산 시내를 돌며 짧은 관광을 마지막으로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에 몸을 싣고 군산의 마지막 날은 저물어 갔다.

낙동강, 4대 천왕

2018년 낙동강 종주를 시작하기 전 새재길 코스를 먼저 완주하기 위해 수안보에서 출발하기로 하였다. 누구나 새재길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이화령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수안보를 시작으로 업힐이 나오길래 당연히 이화령일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넘었다. 하지만 그것은 소조령이었다. 소조령을 넘고 난 후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직 이화령은 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는 넘은 것 같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행촌교차로에서 잠시 휴식하고 본격적인 이화령 업힐을 시작했다. 이화령은 5킬로 정도의 업힐을 끊임없이 올라가야 하는 코스로 오르고 올라도 업힐이 끝나지 않을 듯 이어졌다. 이미 영혼은 저 너머에 가 있고 가쁜 숨과 패달만이 돌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올라왔을까 드디어 이화령 휴게소에 도착할 수 있었고 가쁜 숨을 진정시켰다. 커피 한잔으로 목을 축이고 이화령 다운힐을 내려가니 올라올 때의 힘든 기억들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다. 우리는 이화령을 지나쳐 안동에 도착할 수 있었고 바로 안동찜닭을 먹기 위해 원조집으로 출발했다. 기대가 너무 커서였을까? 아니면 내 입맛이 이상한 것인지 안동에서 먹은 안동찜닭보다 서울에서 먹었던 찜닭이 더 맛있게 느껴졌다. 맛이 없는 건 아니지만 지역 대표가 서울 대표를 이길 수 없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날이 밝고 안동댐으로 향했고, 인증센터에서 도장을 찍은 뒤 다시 안동에 도착했다. 상주로 가는 버스 편을 이용하여 점프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상주에서 구미, 칠곡을 거쳐 대구에 무리 없이 도착할 수 있었다.

낙동강 종주길에서 힘든 구간을 꼽자면 다림재, 무심사고개, 박진고개, 영아지고개 이렇게 4개의 고갯길일 것이다. 코스 하나하나가 사람의 얼굴처럼 생김새가 다르듯 전부

다르다. 하지만 공통점은 고개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체력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점이다. 우리는 영아지고개를 마지막으로 4대 천왕을 영접한 심신을 달래려 했다. 하지만 영아지고개가 이렇게 길 것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산길을 한참이나 지나왔는데도 역시나 산길이었다. 이미 해는 저물어 앞뒤가 잘 보이지 않게 될 때쯤 영아지고개를 벗어날 수 있었다.

4대 천왕을 영접한 후 이미 다리는 내 다리가 아닌 상태로 눈을 떴고, 과연 패달질을 할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자전거에 오르니 신기하게도 점점 몸이 풀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몸은 풀리고 있었지만, 날씨는 그렇게 잘 풀리지 않았다.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체온 유지를 위해 우비를 입고 비와 싸워가며 낙동강 하굿둑을 향해 전진하고 2킬로쯤 남았을까? 일행 중 한 분의 튜브가 터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비가 들이치지 않는 곳으로 피해 튜브를 갈고 출발 생쥐 꼴로 낙동강 하굿둑 인증센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근방 하단역에 숙소를 마련하고 모텔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멸치 쌈밥집으로 직행했다. 그렇게 멸치 쌈밥과 대선 소주 한잔으로 낙동강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다음날 눈을 뜨니 언제 비가 왔냐는 듯 쨍쨍하게 해가 뜨고 있었다. 짐을 챙겨 서부산터미널로 향했고 버스에 오른 뒤 기절하듯이 잠이 들었다. 센트럴시티에 도착하니 또 비가 오고 있었다. 반포를 거쳐 동작대교쯤 갔을까 이번엔 내 튜브가 터져 버렸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동작대교 아래로 가서 튜브를 갈고 집으로 향했다.

제주도, 1100고지 그리고 먹방 라이딩의 시작

내륙의 경우는 자기 자전거를 가져가기가 용이한데 제주도의 경우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 운송비도 문제가 되고 렌탈은 자신에게 맞는 자전거를 빌리기도 믿음이 가질 않아 배편을 이용하기로 했다. KTX를 이용 목포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밤배로 가기로 한 것이다. 새벽 6시 배는 제주항에 도착했고 우리는 반시계방향으로 제주도를 돌기로 했다. 제주도 해안길은 비교적 평이해서 바람의 영향이 없으면 크게 무리가 없는 코스다. 다행히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 무리 없는 라이딩을 할 수 있었다.

배에서 내려 점심때쯤 도착한 곳은 모슬포항. 모슬포항에는 고등어회로 유명한 식당이 있어 고등어회 정식을 먹고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제주도만 여러 차례 다녀가서 제주도 해안길은 힘든 길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차와 자전거는

낙동강 무심사고개를 지나며

천지 차이였다. 중문 관광단지에 들어서면서 업힐과 다운힐을 반복하며 우리를 지쳐가게 했다. 힘겹게 서귀포에 도착하여 짐을 풀고 제주도가 고향이신 분이 소개해준 '한길정'이라는 흑돼지 집으로 출발했다. 들어서니 제주도 방언으로 우릴 반겨 당황스러웠지만, 곧 익숙해졌다. 흑돼지구이와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을 마신 뒤 숙소로 돌아와 다음날을 위해 휴식을 취했다.

우도를 들르기 위해 아침은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때우고 이른 출발을 했다. 달리다 보니 어느새 성산항에 도착할 수 있었고 잠깐 기다리니 우도행 배에 올라탈 수 있었다. 우도에 내려 해녀분들이 운영하신다는 식당에서 뿔소라구이를 먹고 땅콩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을 한 뒤 우도를 나왔다. 우도에서 내려 성산에서 숙소를 잡을 생각이었지만 바람이 좋아도 너무 좋았다. 이 바람을 놓칠 수는 없을 것 같아 제주시까지 가기로 했다. 바람이 도와준 탓인지 함덕해수욕장에 6시쯤 도착할 수 있었고 3박 5일의 일정에 하루가 남게 되었다. 종주가 거의 끝난 것을 기념하며 오늘을 즐기기로 하고 근처의 해물 두루치기 집으로 향했고 2차 맥주를 마지막으로 행복한 하루를 마감했다.

함덕에서 출발해 제주항 근처인 노형동의 '제벌식당'에 도착하였다. 곰탕이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했는데 고기가 국물 밑 2/3가량 가득했다. '제벌식당'에서 해장을 하고 인근에 숙소를 잡았고 전날 술김에 호기롭게 약속한 1100고지

우도의 뿔소라구이

노형동의 제벌식당 곰탕

를 정복하기 위해 출발했다. 제주도 지형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안까지 완만하게 내려오는 지형이어서 반대로 올라갈 때는 끊임없이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다. 내륙의 산길은 오르다 보면 중간마다 완만함과 내리막이 섞여 있어 완만한 구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런 구간 따윈 없다. 그냥 계속 끊임없이 오르는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올랐을까 일행은 중도 포기하고 홀로 1100고지를 정복하기로 했다. 오르며 수 없이 '일행과 같이 내려갈걸'이라는 생각을 하며 천천히 올라갔다. 그때 1100고지라는 표지판이 보이며 앞서와는 다르게 평탄한 길이 이어졌다. 표지판을 뒤로하고 이상함을 느낀 나는 지도를 다시 보니 아차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깨달았다. 물론 잘못 들어선 덕에 야생화 꽃밭을 발견하긴 했지만 말이다. 다시 방향을 바꿔 1100고지로 향했다.

1100고지를 찍고 다시 온 길로 돌아가야 했지만 조금 더 욕심을 부려 보기로 했다. 중문 쪽으로 내려가는 만용을 부린 것이다. 1100고지를 내려와 다시 동쪽으로 향했다. 516 도로 전에 점심을 먹지 않으면 516 도로에서 쓰러질 것만 같아 주변을 둘러보니 콩국수를 하는 식당이 보였다. 아니, 식당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 보니 골프장이었다. 다들 골프복장인 곳에 땀으로 범벅이 된 쫄쫄이가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주변을 살필 상황이 아닌지라 당당하게 앉아 콩국수를 시켰다. 그것도 곱빼기로.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나오니 캐디분이 "이런 날 땀 많이 흘리면 쓰러져요"라며 정제염 몇 알갱이를 건네주셨다. 정제염을 털어 넣고 인사드린 뒤 다시 516 도로로 향했다. 그리고 내가 만용을 부렸음을 오르는 내내 후회하며 또 후회했다. 하지만 성판악에 도착하고 인증사진을 찍은 후 숙소까지 끝도 없는 내리막길을 경험하니 정말 신이 났다. 숙소에 도착하고 씻으니 저녁 먹을 때가 되었고 일행과 아강발을 먹기 위해 시내로 출발했다. 아강발과 족발구이를 시킨 뒤 한라산과 함께 제주도의 마지막 날을 즐겼다.

숙소에서 제주항으로 온 뒤 목포행 배에 올랐고 5시간 만에 목포에 도착할 수 있었다. 목포하면 무엇일까? 그렇다 떡갈비다. 떡갈비 하면 '성식당'. 우리는 다시 '성식당'으로 향했고 떡갈비 정식을 먹은 뒤 상행선 기차에 올랐다.

1100고지에서 인증샷

야생화 꽃밭

아강발

족발구이

동해안 종주, 태풍과 폭우

어느덧 경북과 강원도 동해안 종주만 끝내면 그랜드슬램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것이다. 우리는 그랜드슬램의 부푼 꿈을 꾸며 영덕으로 향했다. 첫날은 짧게 축산항에서 묵기로 했다. 대게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이 들었다.

경북 구간은 영덕에서 울진까지 짧은 코스로 축산항에서 출발해 점심 때쯤 되니 울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무리하지 않고 구간과 구간 사이는 점프하기로 했다. 버스터미널에 들어서서 버스 편을 알아보니 인터넷에서 찾아본 버스 편이 코로나로 인해 이번 주부터 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교통편이 있나 알아보던 중 택시기사분께서 자신의 용달을 가져올 테니 타라고 하는 것이었다. 임원항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업힐을 지나 동해까지 도착할 수 있었고 회사 선배가 보내주신 치킨 세트 기프티콘을 이용해 치맥을 가볍게 마신 후 돌아와 잠을 청했다. 이글을 빌어 재우 선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자 한다.

전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온종일 오락가락하며 점점 더 거세졌다. 우리는 동해를 시작으로 짧지만 숨 막히는 정동진 업힐을 지나 경포까지 오게 되었다. 경포를 지나니 비는 더욱더 거세게 내렸고 천천히 앞으로 나갔다. 우리는 낙산해수욕장에서 숙소를 잡고 짐을 풀었다. 자전거 여행의 특성상 우산은 챙길 수 없는지라 근방의 가까운 곳에서 식사하고 돌아와야 했다.

다음날 태풍이 상륙하면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었다. 남은 거리가 60km 정도인데 그랜드슬램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속초까지 올라가니 체온이 떨어져 더는 무리라고 판단하고 아쉽지만 포기하기로 했다. 남은 구간은 50km 남짓. 우리는 두 달쯤 지나 그랜드슬램의 완성을 위해 속초행 버스에 올랐다. 오전에 도착하여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1시쯤 통일 전망대에 도착할 수 있었고 그랜드슬램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졌다.

그랜드슬램 이후

그랜드슬램을 완성하였으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수첩과 온라인상의 인증센터 기록이 조금 맞지 않아 유인 인증센터를 방문하여야 그랜드슬램 기록이 정리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랜드슬램은 끝났지만 메달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아라뱃길 서해갑문 인증센터를 방문하여 메달을 신청할 예정이다.

처음에는 출근을 위한 자전거에서 지금은 취미활동이 되었지만 자출도 여전히 하고 있다.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퇴근을 이용해 노을, 하늘 공원을 지나 잠수교, 안양천을 거치는 코스로 아쉬움을 달랜다.

작은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며 백발에도 전국을 누비는 백발의 라이더가 되고 싶은 것이다. 물론, 좋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